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68호  
2025년 01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 광활한 사막에서 보내온 정선주 동문의 새해 인사

뉴잉글랜드 지부의 정선주(간호대 68) 동문이 최근 여행한 아프리카 모로코 사하라 사막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정 동문은 남편 박영철(농대 64) 동문과 함께 은퇴 후 페루 마추픽추를 시작으로 칠레 최남단 케이프혼에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 노르웨이 최북단 북극 마을까지 그동안 50개국 이상을 다녀온 여행 매니아다. 여행지에서 하이킹은 기본, 패러글라이딩까지 하며 직접 체험하는 여행을 즐긴다.

지난 10월 30일부터 5주 간은 고대 항구 도시가 있는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 지방의 아드리아 해안에서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모로코 사막으로 이어진 여행을 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의 모래밭 위에서 두 손 들어 인사하는 정선주 동문의 모습이 보인다.

새해 아침을 여는 일출은 보이지 않지만 광활한 사막 풍경이 새해 웅만한 것들은 “그 까이꺼”하며 넘길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준다.

## “많은 동문들 잇단 종신이사 가입에 감사”

신년사



이상강  
제17대 미주동창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선후배님들 덕분에 즐거웠던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또 희망에 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선 우리 동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연로하신 선배님들의 부고 소식을 많이 접해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올해는 특히 건강 잘 챙기셔서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염원합니다.

### “조만간 미주 동문 데이터베이스 선보일 수 있어 18대 19대 20대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초석될 것”

지난 한 해 동문들께서는 미주동창회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부 2400마일, 중부 동부 남부로 6700마일을 차를 몰고 달리며 만난 각 지역의 동문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환영해주셨고 ‘서울대인은 한가족’이라는 믿음으로 미주동창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부 방문을 마친 후 많은 동문들이 종신이사 가입으로 미주동창회의 재정 자립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주동창회는 새해를 맞으며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6월이면 17대 회장으로서 2년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미주동창회장으로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미

주 동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미국내 3000여개의 비영리단체들이 회원 및 회비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네온 시스템과 계약해 현재 동문 데이터 입력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문은 물론 새로운 동문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18대, 19대, 20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미주 동문 네트워크 시스템이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신 제 14대 윤상래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식적에 당나라 시 300수를 외워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 때면 한 수씩 읊곤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잊었지만 그래도 좋은 벗들과 술 한잔 할 때면 서너 수는 떠오릅니다. 동문들께 새해 인사를 쓰다 보니 이백의 ‘友人會宿’(우인회숙)이 생

각합니다.

滌蕩千古愁  척탕천고수  
留連百壺飲  유련백호음  
良宵宜清談  양소의청담  
皓月未能寢  호월미능침  
醉來臥空山  취래와공산  
天地即衾枕  천지즉금침

오랜만에 만난 벗들과 묵으면서 오랫동안 쌓인 그간의 근심을 말끔히 씻어내려고 백 항아리의 술을 들이키는데 청담을 나누기 마땅한 좋은 밤인데다 쉽게 잠들지 못할 정도로 달도 밝아 계속 술을 마시다보니 얼큰히 취해 텅빈 산 어디든 활개를 펴고 누우니 마치 땅은 요와 베개요, 하늘은 이불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입니다. 호방한 이백의 기개가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올해도 미주 각 지역의 동문들이 동문 벗을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근심은 반으로 덜어주고 기쁨은 2배로 크게 하며 즐겁고 보람있는 서울대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 “미주 동문들의 성원은 모교 발전의 큰 힘입니다”



**유흥림**  
모교 총장

“서울대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이자 희망  
창의적 인재 양성하고,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주 동문들께서는 지난해에도 모교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교를 향한 애정과 격려는 서울대학교 발전의 큰 힘입니다. 먼 타국에서도 모교를 생각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동문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대학교는 ‘대전환시대를 이끌어가는 학문공동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적 혁신을 통해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모교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동문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셨듯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문에 걸친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서울대학교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며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진보와 개혁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위기는 곧 대학의 위기입니다.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교육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성장을 도왔으며, 학문 연구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추

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며 교육과 연구의 틀을 새로 구축하려는 혁신의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총장에 취임하며 서울대의 대전환을 이루는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대전환은 반세기전의 종합화를 완성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2025년은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에 종합화를 이룬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종합화를 통해 비로소 다양한 학문 간의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할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연합대학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 진정한 통합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었고, 위기는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미래를 내다보시며 구상하셨던 종합화의 이상은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종합화를 실현하여 새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서울대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혁신의 동력을 더욱 키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울대학교와 우리 동문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굳건히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여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종합화 5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모교와 함께 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젊은 동문들 참여 이끌어낼 광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황효숙**  
미주동창회 제18대 차기회장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제18대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제34차 평의원 회의가 2025년 6월20일부터 22일까지 역사와 전통의 도시 세인트폴 미네소타에서 개최됩니다. 1992년 미주동문회 설립 이후 전임회장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자랑스러운 업적을 토대로 이상강 현 회장님께서 여러 지부를 방문하시고 장학기금을 전달하시며 지부간의 소통과 협

력을 도모하는데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재정확립을 위해 힘을 기울이심과 동시에 새로운 Software 를 구입하여 Database 를 구축하시는 일에 정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가장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동문회를 만드는 것에는 아직 요원합니다. 저조한 동문 참여의 여러가지 원인 중 젊은세대의 동문회 외면 현상이 도드라집니다. Analog 에서 Digital 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젊은 동문들이 편안히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의 재검토와 새로운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당면한 과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미주동문회는 2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의 종합체입니다. 각 세대는 그들이 자라온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동문회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대와 Baby Boomer 세

대들(1950-1964)로 이루어진 가부장적 세대들은 삶의 가치를 안전한 직장, 충성심, 존경받음에 두고 있습니다. Computer 와 Cellphone 에 일찍이 노출된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Social Media 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Goal,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에 특별한 가치를 두며 대면을 꺼려하고 현실과 Virtual 세계를 넘나들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대면으로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Analog 세대와는 대조적인 비대면이 뉴노멀이 된 세대입니다.  
선배 동문님들을 위한 Analog system 을 유지하면서 젊은 동문들을 영입하기 위한 Digital system 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미주동문회 Website 의 활용도를 장려하여 Zoom 의 이용과 Virtual program 들을 활성화하여 젊은 동문들의 다양한 참여를 증진하려 합니다. 지난해 11월말 Brain Network Program 의 일환으로 이진형 동

문의 뇌질환 치료를 위해 “LVIS” program 을 이용한 기업개발에 도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Presentation이 있었습니다. 획기적인 발명과 창의적 도전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좀 더 많은 동문들 특히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동문회라는 개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는 대응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Digital Contents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Online platform 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여 젊은 동문들의 영입에 힘쓰겠습니다.  
서울대인의 자긍심과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미네소타 프로젝트 정신에 힘입어 “지속가능”을 향하여 도전해 보려 합니다. 미주 동문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혼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국 대한민국에 평안과 희망이 새해에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2025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공동체 의식 갖고 다양한 사회공헌 앞장 설 것”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서울대 동문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

서울대 종합화 50년, 모교 발전 위해 더 노력  
40억 넘는 장학금, 장학생 1500명에게 지급

며, 더욱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계신 동문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미주동포사회는 물론 한국과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사회에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에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문으로서 우리는 학문과 지식의 힘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서 있는 공동체

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 지난해 서울대총동창회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고액인 40억여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장학생 150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여기엔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에 매진하는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후배 양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협력해서, 네팔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재학생을 지원하고, 동문 단원도 파견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힘들고 굶은 일에 앞장서는 인재가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들도 동

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문 기업인들의 모임인 ‘관악경제인회’를 발족해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 기업인의 중지를 모으고, 젊은 서울대 동문 창업가를 양성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올해도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모토로 서울대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5년은 서울대가 종합화 50주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광복 80주년의 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협력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동문들의 사회적 공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주 동문 여러분들이 한미 간 협력과 번영에 기여할을 하듯, 본회도 이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2025년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제19대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임기 2027. 7.1 ~ 2029.6.30)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제 19대 미주 동창회를 이끌 차차기 회장(임기 2027.7.1 ~ 2029.6.30)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2025년 1월 31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제 19대 회장 선거 일정**

1. 2024년 12월31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
2.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동창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 발표
3. 2025년 6월 제 34차 전국 평의원 회의(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근거규정**

1.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2.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책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인선위원**

- 위원장 노명호**  
(626) 991-4457 steve.ro@lee-ro.com
- 이상강 17대 회장**  
(918) 616-3386 mpcsglee@gmail.com
- 황효숙 18대 회장**  
(651) 308-0976 sook@nano-dyne.com

- 조규승(시카고)  
김정필(뉴욕)  
최진민(뉴잉글랜드)  
정세근(워싱턴DC)

**Minnesota**  
WELCOMES You

**제34차 평의원 회의**  
2025년 6월 20일 ~ 22일  
The St. Paul Hotel

“**환영합니다!**”



# 김경숙 동문, 모교 생과대 후배들에게 장학금 준다

시어머니 · 친정 어머니 이름 딴 희정 장학금  
“형편 어려운 학생 선발 요청” 30만불 약정

가정대 출신 동문이 모교 생활과학대 (가정대 후신)에 거액의 장학금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주인공은 이를 극구 알리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서울대 미주재단을 통해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알려질 수 밖에 없었다.

주인공은 바로 김경숙(생과대 70·사진) 사무총장이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의 배우자이기에 더욱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동창회 임원이므로 왠지

모를 민망함이 있었고 동창회보에 기사화 되는 것도 꺼려했다.

하지만 기자가 “미주재단을 통해서 어차피 알려질 사실을 동창회보만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해 취지만 간단히 설명하기로 했다.

김 동문은 원래 수년 전부터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었으나 기회를 보지 못했는데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모교 생과대 학장을 만나 뜻을 전달했고 이번에 미주재단을 통해서 송금했기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



게 하는 작전’에는 실패했다. 장학금 약정은 3년간 매년 10만달러씩 총 30만 달러로 정했다.

“원래 지난해가 입학 50주년이어서 한국에 갔는데 뜻을 전달할 학장을 만나지 못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날 수 있어서 결행하게 됐습니다.”

장학금 이름도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성함을 따서 ‘희정 장학금’으로 결정했다.

김 동문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메리트 장학금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니드 장학금으로 특별히 부탁했다”며 “학장님이 알아서 맞는 학생에게 전달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 서울대 미주 동문 데이터베이스 런칭 눈 앞

시스템 계약 마치고 마무리 입력 작업중  
모교 협조 받아 동문들 입학 정보도 확인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지난 1년여간 추진해온 전 동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가칭 스누시스SNU SYS)의 런칭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동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지난 6월에 열린 제33차 평의원 회의에 보고된 것과 동일한 시스템이다. 연말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인 기존 데이터 입력 단계로 현재 동문회보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수신하고 있는 동문 대부분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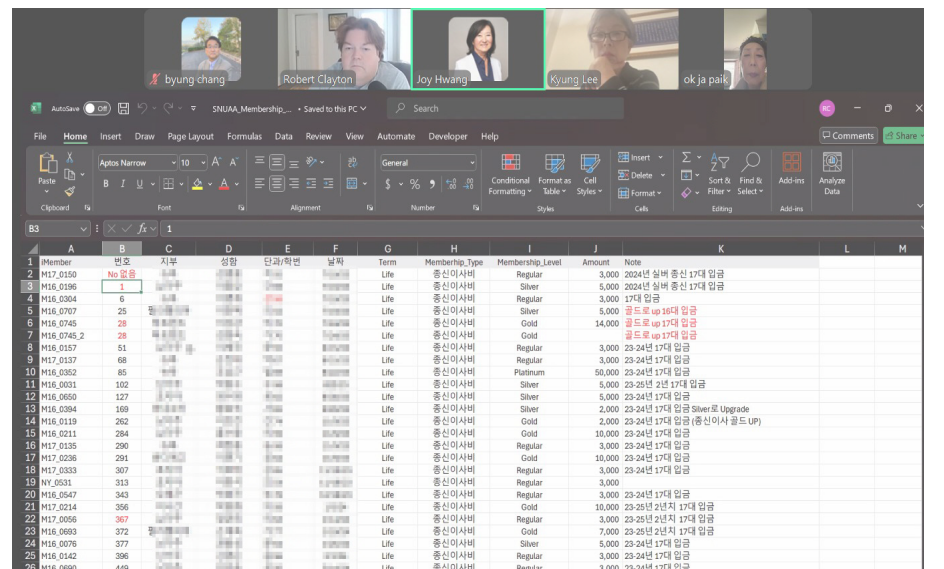
미주 동창회에서 채택한 네온(Neon) 시스템은 미국내 3000여 비영리 단체들이 회원 및 회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나용화(생과대 79) DB국장은 “지난 3개월간 업체와의 미팅, 테스트, 확인을 거쳐

네온 시스템과 계약했다”면서 “도입되는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동문회원 관리, 연회비, 종신회비, 후원금 등의 모금관리, 일반 동문들은 네트워크 환경이 손쉽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한국 대학 동창회 어디에도 갖추진 못한 시스템을 시작하게 됐다”며 “처음이지만 확실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이듯이 미주 내 최고의 동창회도 서울대 동창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어왔다. 그동안 역대 동창회가 훌륭한 성과를 내왔지만 동문 관리 시스템은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17대에 이르러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미주동창회 데이터베이스국은 현재 마지막 점검과 함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폼, 페이지,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있으며 기존 동문 데이터의



지난 12월 12일 미주 동창회 임원들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업체직원과 줌 회의를 하고 있다. [화면 캡처]

오류 수정과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DB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동문은 “모교와 서울 총동창회의 협조를 받아 전체 기존 동문들의 입학 연도와 전공 등의 입학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주동창회 측은 “종이 신문을 배송하거나 PDF로 서비스하고 있는 동문회보도 이번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이 완료되면 제17대 회장단이 마저 이루지 못한 동문회보 디지털화 및 동문 커뮤니티 구성은 다음 회기에 가능해진다”고 예상했다.

한편 동창회측은 미주내에 등록된 서울대 동문은 5000명이 안되지만 실제 동문 숫자는 1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보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Tel: 818-395-1967 | Email: snuausa17@gmail.com



# “동창회에 실질적 도움 주고 싶어 함께 뜻 모아”

차재철(의대 62) 남광순(음대 64) 동문 부부

“서울대 출신에 자부심” 실버 종신이사 가입

“우리 학번중 1968년 졸업생은 모두 103명이었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라 미국에 오게 됐죠.”

최근 차재철(의대 62) 남광순(음대 64 피아노 전공) 동문 부부가 종신이사 실버가 됐다. 부부가 같이 종신이사가 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다.

두 사람은 1968년에 함께 졸업했다. 당시 미국은 지금과 달리 외국에서 의대를 나온 사람들도 모두 어렵지 않게 의사로 받아들였다.

차 동문이 1971년 군대를 마치고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까지 받고 미국에 올 수있었던 것은 당시 상황에 기인한다. 초청해준 병원에서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줬다. 원래 남 동문은 1968년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년간 공부하고 있었는데 차 동문이 미국에 가야 한다고 불려서 1970년에 결혼했다.

급하게 결혼하면서 비엔나 대신에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자고 약속했는데 막상 미국에 와서는 그렇지 못했고 차 동

문은 그것이 평생 동안 무척 미안했다고 전한다.

미국에 온 차 동문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 클리블랜드 소재 대학 병원에서 병리학 레지던트를 했다. 5년 간의 클리블랜드 생활을 마치고 병리학 클리닉을 개업하기 위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중소 도시 피오리아였다.

부부는 15년간 피오리아에서 살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살기 좋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버지니아 비치로 이주해 그곳에서 22년을 거주했다.

현재 거주하는 북가주로 이주해 온 것은 은퇴와 함께 자녀들(1남1녀)을 따라 온 것이다. 두 자녀는 둘 다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하고 북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손자 손녀를 보려면 캘리포니아에 자주 와야 해서 아예 이주해온 것이다. 현재 북가주에는 11년째 살고 있다.

아들은 스탠퍼드를 나와서 MD PhD를 받았는데 졸업 후 자투리 시간에 일을 배운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고 있다.



슬하에 1남1녀를 둔 차재철-남광순 동문 부부의 가족 사진.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됐지만 아내(며느리)가 의사라고 자신은 의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같다며 더 재미있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말리지 못했다.

딸은 스탠퍼드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을 나와서 북가주의 여러 회사에서 일했고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 미국 지사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실버 종신이사가 된 것은 매년 동창회보를 보기 위해서 연회비를 내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창회에 도움이 되려

면 종신 이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차 동문이 자신의 출신 고교 동창회장을 맡아 일하다 보니 동창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마침 경제적 여유가 생겨 결심했다고 밝혔다.

차 동문은 “우리 부부가 둘 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면서 “그런데 자부심으로 끝나지 않고 ‘동창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자’는 것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 “동문 모임에서 후배들과의 만남, 즐겁고 감사해”

진성호(공대 64) 유현주(문리대 65) 동문 부부

“미국 생활 성공 큰 보람” 종신이사 함께 가입

UC샌디에이고 교수로 13년간 재직하고 2015년에 70세로 은퇴한 진성호(공대 64) 동문과 미국에 와서 통계학 박사가 된 유현주(문리대 65) 동문 부부가 부부 종신 이사가 됐다. 부부는 현재 샌디에이고 지부 소속이다.

이들은 학부 시절 캠퍼스가 달라서 UC버클리에 유학 오고서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호 동문은 재료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문리대 수학과 출신인 유현주 동문은 미국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았다.

UC버클리에 박사학 받은 진 동문은 벨연구소에서 26년간, UC샌디에이고에서 13년간 연구에 전념했다.

진 동문은 “AT&T에서 자금을 제공한 벨연구소는 한창 때는 박사만 5천명이 연구할 정도로 시설도 엄청났고 트랜지스터 등 첨단 과학에 있어서 업적이 탁월했다”면서 “그 곳에서 정말 학자로 마음껏, 실컷 연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미국이어서 벨연구소이기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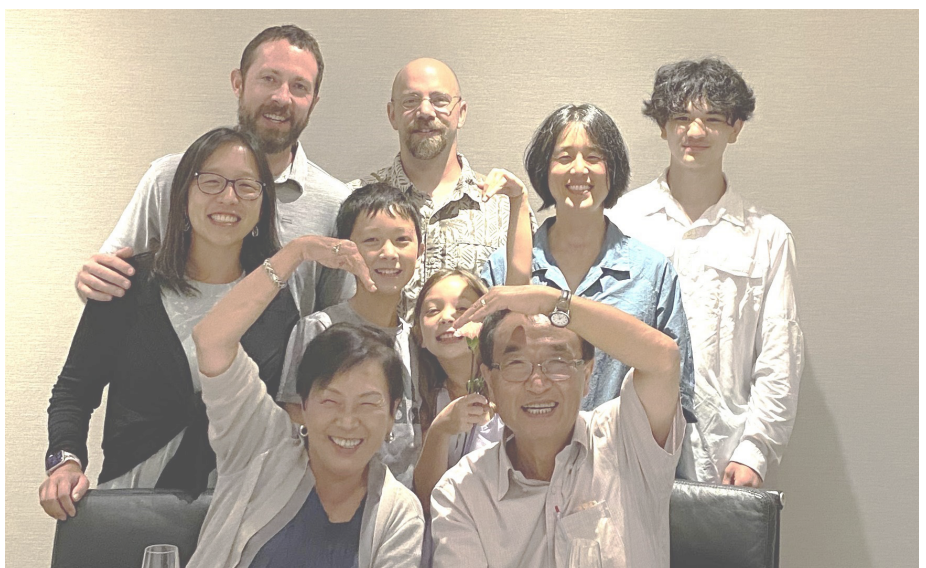
했던 연구가 많았고 그것이 현대 인류 문명을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동문은 초전도체, 자성재료, 전자재료 등을 집중 연구했다.

하지만 AT&T가 반독점법으로 분사되면서 벨연구소에 있던 수천명의 박사들이 제갈길을 가야 했고 진 동문은 UC샌디에이고로 옮겨와 제자를 양성했다. 그의 연구실은 연간 100만달러를 끌어와 박사를 20여 명 길러냈다.

유현주 동문은 통계학 박사를 받고 바이오 통계 분야에 입문해 제약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이 결과물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했다.

부부 슬하에는 두 딸이 있다. 프린스턴을 나온 큰 딸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 교수로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있는 의대에 있고 하버드를 나온 작은 딸은 보스턴에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역시 통계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진성호 유현주 동문 부부와 두딸 부부, 손자손녀가 모여서 가족사진을 찍고 있다.

진성호 동문은 “매달 집으로 배달되는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자세하게 열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은 특히 한국의 발전상이 많이 알려져 미국에 살면서 더욱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큰 딸과 작은 딸이 좋은 대학을 나

오고 미국 사회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한다”며 “부부 모두 미국에 와서 정착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운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샌디에이고 지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몇 달에 한 번씩 갖는 야유회에서 후배들과 만나서 것이 무척 즐겁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 “선배가 사준 설렁탕 한 그릇이 19년 봉사로 이어졌죠”

## 워싱턴주 동창회장 2년 임기 마친 임헌민 동문

년부터 총무로 일해오다가 최근 2년간은 지부 회장으로 그 책무를 다했다. 지난 12월말에 자리를 넘기고 평회원으로 돌아온 임헌민 동문의 인생 스토리와 동문 활동에 대해서 들어봤다.

### #삼성전자 지원 받아 미국 유학

임헌민(공대84) 동문은 원래 삼성맨이다.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군대도 1990년부터 5년간 삼성전자에서 병역 특례로 마쳤다. 삼성전자라면 스마트폰의 대명사 갤럭시와 D램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냉장고 세탁기 같은 백색 가전 등이 떠오르지만 임 동문은 생산 기술 연구소에 배치됐다. 삼성에서는 그를 미래의 인재로 보고 공부까지 더 시켜줬다. 모교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게 했다.

1996년 가을 삼성전자가 D램으로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직원들에게 역대 가장 엄청난 거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그중 하나인 ‘해외로 유학을 시켜주겠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해서 1996년 가을 미국에 유학생으로 도착했다.

미네소타 주립 대학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진입한 임 동문은 석사를 바로 받고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에는 IMF의 파도가 닥쳐왔다.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학 비용 지원을 더 이상 해주지 못하니 귀국하라는 명령을 보내왔다. 이미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구조 조정이나 분사 같은 엄청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학비는 무조건 지원이 아닌 사내 융자였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도 문제이고 남어도 문제인 상황이 됐다.

미국에 남기로 결심했다. 아이까지 있는데 공부를 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사내 융자금은 나중에 귀국하면 거주하려고 남겨뒀던 집을 팔아 갚았다. 미국에서 직장을 잡기로 했다. 마침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왔다.

“기계공학이 전공이니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직이 단번에 되는 경우가 없으니 연습 삼아 신청했습니다.”

구직 연습이지만 정성을 다했다. 기계공학 전공인 임 동문은 로봇 생산 기술을 주로 공부했다. 산업용 로봇을 전공으로 연구했으니 프로그램 코딩이 친숙했다. 로봇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했

고 평소 취미 생활로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주위에 나눠 주기도 했는데 마침 이를 마이크로소프트 리크루터에 보여줬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본사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해 본사가 있는 레드먼드에서 4팀과 인터뷰를 했다. 영어도 익숙하지 않고 컴퓨터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임헌민 동문이 최근 가족 사진을 찍었다. 큰 딸 임지나는 코넬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병원에서 내과전문의로 일하고 있고 둘째인 아들 임현수는 역시 코넬을 나와 레드먼드 다운타운(시애틀)에서 치과 클리닉을 개원했다.

4팀 모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팀에서 시작했다. 이후 윈도우OS팀에서 일하고 있다.

윈도폰을 개발하는 일도 진행했다. 당시에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 관계에 있던 삼성의 관련 부서 사장이 찾아와 삼성폰 개발을 위한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그분은 “한국어로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속 시원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해 피쳐폰은 지고 스마트폰이 뜬다는 사실을 예화를 들어가면 설명했다.

“삼성맨으로 학교 공부까지 지원 받으며 삼성 덕을 톡톡히 봤는데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을 도울 기회가 됐지요. 덕분에 마음 속 한 구석에 있던 마음의 빛을 상당 부분 갚았습니다.”

평소 임 동문은 삼성 뿐만 아니고 대하

어느 조직이든 핵심 멤버들이 있다. 우리 동창회도 마찬가지다. 워싱턴주(시애틀) 지부의 임헌민 회장도 이런 경우로 지난 2006

공부까지 시켜 준 한국에도 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이 작용했는지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진출을 열심히 도울 수 있었다.

기밀이 아닌 수준까지 윈도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다. 앞으로 윈도는 AI와의 접목을 위해 GPU같은 AI부품의 성능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윈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한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

태근 선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며 재미과학자협회(KSEA)에서 활동하던 임 동문을 눈여겨 본 듯하다.

그렇게 겨우 설렁탕 한 그릇을 계약금(signing bonus)으로 받고 2022년까지 총무를 맡았다. 횡수로는 17년이 된다.

그러다 보니 9명의 회장을 모셨다. 그는 “9명의 대통령을 모신 국무총리인 셈”이라며 “미주내 동창회에서 보기 드문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것은 훌륭한 선배님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억에 남는 선배님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최고령 동문인 장석주(의대 47) 동문, 꼭 나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준 최준한(농대58) 동문, 음악 활동을 하면서 동창회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임무웅(음대64) 동문, 10년 넘게 회계 감사로 지부의 흔들림을 막아준 김인배(수의대59) 동문을 꼽았다.

“코로나로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는 동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해마다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참석자 기준으로는 본다면 이제까지 최소 5번의 대박이 났으니 성공률이 높은 셈입니다.”

동창회 행사가 대개 활동 보고, 모임 보고, 재정 보고, 차기 임원 선출, 장학금 전달 등으로 이뤄지는데 워싱턴 지부는 동문들의 즐거움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공연하기도 했다. 출연진 및 배우는 당연히 임원들이었던 덕분에 공연을 위한 연습이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MT가 됐다. 뮤지컬이지만 노래는 하지 않고 연극 형식으로 어린이 역에 맞게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그 상태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회장을 마치고 평회원으로 돌아가는 임 회장은 “회장을 마친 후 후임 회장들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참석하지 않는 선배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저는 좋은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배우는 기회가 열려 있는 동창회에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회장에는 이정관 동문이, 총무에는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고 있는 박한규(컴공과 91)동문이 맡게 된다.

장병희 편집위원



지난 2020년 워싱턴 지부에서 임원들이 전체 모임 순서중 하나로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을 공연했다. 4주동안 주말마다 모여서 연습했다. 무대에서 출연진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연습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한 동문들.





# ‘감세’ 경제 활성화 기대감 · ‘관세’ 물가 인상 우려 교차

## 최운화(상대 78) 동문의 새해 미국 경제 전망

2025년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영향이 큰 해라고 할 수 있겠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대표하는 감세와 규제완화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관세와 이민 정책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운화(상대 78) 동문을 초청해 새해 미국 경제 전망을 들어봤다. 최 동문은 남가주에서 유니티뱅크와 CBB뱅크 행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모펀드인 퀀텀(Quantum) F&A 대표를 맡고 있다.



최운화 (상대 78)

2024년은 2023년부터 이어져온 AI의 열풍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고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득이 늘어나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소비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침내 연준이 금리인하로 돌아선 해였다.

여기에 더해 가장 큰 정치적 변수였던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친기업, 친소비 정책이 기대되면서 연말에 이르러서는 기업과 개인들의 경제에 대한 평가와 기대감이 올라가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잘되가는 중에 새로운 대통령이 가져올 순풍으로 경제의 청신호가 더욱 밝아진 한 해였다고 하겠다.

이런 긍정적 배경으로 시작하는 금년은 매우 긍정적 기대가 많은 분위기이다. 경제도 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시장도 잘 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하지만 경제적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내용의 정점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변화가 있다. 따라서 금년도 새해 미국경제 방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관련 공약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본다.

### 1. 감세와 규제완화

트럼프 정권이 가져올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은 감세와 규제완화다. 당연히 감세는 개인에게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증가를, 기업세 감소는 기업투자 증가를 유도할 것이다. 2017년의 감세안을 금년도 말에 연장 내지는 영구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추가로 기업 법인세 추가 감소와 팁과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등이 된다.

정부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는 효율성을 올린다는 점에서 경제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환경과 소비자 보호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가치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무조건 좋아할 수 만은 없다. 환경보호나 소비자 보호는 당장에는 사회적 비용상승을 가져온다. 하지만 환경규제는 미래를 좋게하려는 움직임이고, 소비자 보호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목적이 있어 이들의 축소나 폐지가 꼭 좋은 선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부작용보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가격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2. 관세

트럼프 정책의 핵심공약은 관세라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해 위대한 미국을 재건한다는 목표 달성을 관세로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주로 제품생

산국이기에 때문에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이들 수입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미국 내 생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논리다.

하지만 관세는 미국 내 물가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내 생산력이 준

하는 이민자들의 대외활동 기피로 소비가 줄 것이다. 공급 면에서는 이들이 주로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 부문의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노동비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의 압력이 올라갈 것이다.

### 4. 재정적자와 금리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정책은 재정적자를 키우는 요인이다. 반면에 관세 인상은 재정적자를 줄인다. 규제완화로 정부조직이 축소되면 이 또한 적자감소 요인이다. 현재 이들 증가요인과 축소요인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적자 증가가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연방부채는 늘어나면서 연방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부채를 늘리려면 금리를 올려 연방채권을 팔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연준에서 단기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중장기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돼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 5. 인플레이션과 금리

감세는 소비촉진을 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가져온다. 여기에 관세 역시 물가상승 압력을 가져온다. 또 이민자 추방과 이민 축소로 저임금 노동력이 줄어들면 노동비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 요인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다 감안하면 미국 경제는 감세와 규제완화는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재정적자 확대와 관세 및 이민자 축소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금리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년도의 미국경제의 전망은 이들 정책들이 얼마나 빨리 집행되느냐, 또 집행이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따라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의 성장도가 결정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의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큰 한 해라고 하겠다.

##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17@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 2025년 나의 새해 소망

12월31일과 1월1일은 낮과 밤이 교차하는 수많은 날들 중 하루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간처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마법의 시간’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채워진 한 해였다 해도 다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곤 한다. 우리 서울대 동문들은 새해를 맞아 어떤 소망과 다짐을 했을까? 각 지부 동문들이 보내온 새해 소망을 소개한다.

### 뉴잉글랜드 지부



**윤상래**  
(수의대 62 · 제 14대 미주 동창회장)

12월 14일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을 보고 왔다. 2만여 명의 관중을 열광시킨 공연도 훌륭했지만 앵콜 요청을 끝까지 받아주며 관객의 성원에 여러 차례 응답을 해준 겸허한 태도는 타인의 귀감이 되리라 본다. 마지막 순서로 12살 딸 베로니카와의 공연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으며 딸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보첼리는 12살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는데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 어린 딸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예쁜 딸을 보고 싶었을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그러면서 나의 나약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려움을 극복한 보첼리의 용기를 되새기며 새해에는 나의 80대의 인생을 좀 더 값있게 만들고 싶다.



**정선주**  
(간호대68)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다시 꼭 가야지 하는 욕망을 가득 채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새해에도 새로운 곳 어딘가에서 신나는 순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 워싱턴DC 지부



**오인환**  
(문리대 63 · 12대 미주동창회장)

새해에는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를 실천해보자.



**김연주**  
(자연과학대 화학 90)

2025년에는 매일 아침 달리기와 걷기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테니스 연습에 꾸준히 매진하며 한 걸음씩 실력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세 가지를 기록하며 마음의 풍요로움을 채우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도해본 적은 없지만, 새해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품으며 더욱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김문소**  
(농대 수의학과 61)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띠’ 해입니다. 푸른 뱀은 시작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뱀은 지혜롭고 신중한 동물로 여겨 왔고, 또한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이기에 새로운 시작과 재생, 치유와 영생을 뜻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뱀은 손도 발도 없지만 몸으로 땅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혀로 공기의 온도와 냄새를 알 만큼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지닌 동물입니다. 새해에는 뱀의 특징 중 지혜롭고 신중하게 치유하며, 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고종성**  
(사범대 화학교육과 75)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엔 동문 모든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유숙희**  
(사범대 90)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시간을 투자해 왔던 삶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작은 사회봉사라도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일년이 되고 싶습니다.



**정태영**  
(문리대 71)

나의 아버님은 만년에 가끔 안방 벽 높이 걸려 있는 할아버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자꾸 옛날 생각만 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도 나이가 드니 그런 경향이 조금씩 더해 가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그럴때면 나는 “아니 미래를 생각해야지”하고 마음을 고쳐보려고 한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는 가슴을 적시는 서정시, 가슴을 꿰어 오르게 하는 서사시를 쓸 때는 유용할 지 모른다. 그러나 미래를 가능할 때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 태양과 함께 지구가 캄캄한 우주 속을 뚫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다 아는 과학지식이 되었다. 거기에는 옛날로의 회귀는 없다. 언제나 새로운 신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새해에도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려고 궁리할 것 같다. 캄캄한 어둠 속에 뭐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방향이 옳은 것 같다.

### 미시간 지부



**강신조**  
(공대 62)

**I wish.....**  
In 2025, Korea climb up the shining city upon a hill, where citizens be the happiest ever in history of Korea with their free, open mind, creativity and hard work. Just like what Koreans have done to climb up the economic hill, to the Top 7 of the world already! Soon to Top 5!

**I wish.....**  
This happy, proud, confident Korea will lead the world for the better future on these principles.  
Support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s(SDG); no poverty; zero hunger; good health and well being; quality education; gender equity; clean water and sanitation;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more.....

**I wish.....**  
Also, all members of SNUAA's be happy in every thing they do in good health

### 워싱턴주 지부



**이정관**  
(농대 83)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경기침체와 전쟁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전 세계의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전쟁들도 종식되어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동창회 장학사업에 더 많은 동문 참여했으면”



## 조지아 지부



**김명숙**  
(약대 69)

이 땅에서의 나의 소명을 따라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와 가정에 평화를 얻고, 동창회를 포함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저희 간절한 소망이며 계획입니다.



**정인숙**  
(약대 69)

① 한국의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 in Korea) ② 한반도 통일 (Unification of Korea) ③우크라이나 전쟁 종식(Ceasefire of Ukraine War) ④우리 모두의 안녕과 번영(Prosperity to everyone)



**석호태**  
(공대 85)

조지아주에서 새로운 건설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2025년에는 나의 사업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 사회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이종호**  
(인문대 81)

2025년은 미국 온지 24년, 결혼 34년, 직장 생활 38년, 나이는 63세 되는 해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모두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새해에도 기쁜 소식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미네소타 지부



**문성인**  
(공대 공업화학과 88)

2025년 새해부터 미네소타 지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동문 선후배님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동창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남가주 지부



**한흥택**  
(공대 60)

전 세계가 독재자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우리 동창회의 장학 사업과 기업 네트워크에 많은 동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태환**  
(문리대 79)

‘을사년에’를 사행시로 지어 대신하고 싶다.

**을:** 을사늑약 두 갑자 120년 지나도,  
**사:** 사필귀정은 글로벌 위기속에 묻혀져가네,

**년:** 년말년시가 또 지나며 ‘무엇이 중한디’ 생각해보니,

**예:** 예돌러 가로막힌 내마음속 오만과 편견부터 버려야겠네.



**김자성**  
(의대 80)

최근에 몇 차례 하모니카에 영감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 어릴 적 마스터했다고 생각되어 접은지 오래 전인데... 블루스풍의 묘한 음감도 나오고, 또 클래식 음악과 같이 연주되는 멋진 약기로 되는 걸 보았다.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산이든 바다든 어디서나 분위기 따라 한 곡조 연주할 수 있다면 올해 더 맛있는 삶이 되겠다. 송창식의 나는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백시환**  
(의대 93)

동문 여러분 올해가 2025년 을사년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어려운 난관을 요령있게 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 계속 주님의 자녀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계속 성장하고 신경과 전문의로서 음악가로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뉴욕 지부



**정해민**  
(법대 55)

사필귀정(事必歸正)



**우규환**  
(사범대 60)

男兒一言重千金(남아일언중천금)을 되새기며 참여, 협력, 영광의 motto를 성취하는 뉴욕지역동문회로 일치단결 합시다.



**김창수**  
(약대 64, 경영대학원 68)

새해에는 우리 동문들이 등산, 골프, 산보 등 걷기 위주의 운동과,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보다는 신체 조직에 유익한 생선 위주의 소식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시며, 독서, 음악, 집필 등으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응남**  
(농대 70 · 15대 미주동창회장)

“단막극이라는 인생의 엄정한 무대에서 내려 올때, 우리 모두 이웃으로부터 박수를 받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현지**  
(미대 88)

Happy New Year







김정필 뉴욕동창회장.



두 달 전 결성됐음에도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인 동문합창단.

# 동문 합창단 데뷔 공연, 경품은 한국 왕복 항공권

두 달여 매주 줌미팅하며 다채롭게 준비  
동문·가족 160여명 다 함께 즐거운 시간



축사를 하는 권정덕 이사장.

뉴욕 동창회(회장 김정필, 이사장 권정덕)는 12월 7일 뉴저지 포트 리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2024년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년에 비해 2000년대 학번의 젊은 음대 동문들이 대거 참여해, 한 시간 전부터 특별 공연 리허설이 진행되는 등 활기가 넘쳤다.

1부 행사는 김병순(사회대 82) 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160여 명의 동문과 장학생, 동문 가족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정해민 상임고문은 “지난 분란을 딛고 다시 뭉친 뉴욕지부 동문들이 자랑스럽다”며 “이제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 교가의 가사처럼 ‘더욱더 융성하는 서울대학교와 뉴욕 동창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박제순(인문대 82) 장학위원회(위원장 성기호) 총무의 사회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노재욱, 송학린, 조상

근 동문과 권정덕, 정해민 등 다수 동문의 풍성한 기부 덕분에 NYU 석사 2년 차 음대 홍수희 동문과 컬럼비아대학교 박사 4년 차 이다영 동문을 비롯해 동문 자녀 4명까지 총 6명에게 장학금(\$3,000씩)이 수여되었다.

2부는 동문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동문 음악가들의 축하 음악회로 꾸며졌다. 이번 송년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3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대규모 합창단(단장 정경희, 지휘 변진환, 반주 한빛나)의 무대였다. 환호 속에 등장한 합창단은 두 달 전 결성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였다. 합창단은 “퐁당퐁당” 동요로 시작해 마지막 곡 “아리랑”으로 장내를 울려 퍼지게 했다. 특히 북소리와 어우러진 구성진 아리랑 가락은 한 해의 묵은 감정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통쾌함과 감동을 선사했다.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고, 정경희 단장은 “지역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4번의 연습을 소화한 동문들께 감사드린다”며 “동문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축하 음악회에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테너 박종현, 메네스 음대 연주자 과정의 바이올리니스트 진요셉, 줄리어드

석사 과정 중인 바리톤 김선진, 스토니브룩 박사 과정 중인 피아니스트 김나형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관객들의 앵콜 요청을 받을 정도로 열띤 공연을 펼쳤고, 동문들은 “역시 최고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동문들이 함께 즐기는 3부 순서가 이어졌다. 장기자랑 첫 순서로는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이승우(약대 63)·이명중(공대 72) 동문의 “향수” 열창이 펼쳐졌다. 이어 김광희 동문의 특별 댄스 시범이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가장 기다려진 경품 추첨 시간도 이어졌다. 손경택(농대 57) 동문이 기증한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권정덕(의대 64) 동문의 노트북 두 대, 이유성(사범대 57) 동문의 조리기구, 윤자영(음대 89) 동문의 화장품 세트 등 다채로운 경품이 준비되었고,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 열기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특히 한유미(사대 84) 동문의 팝송 공연과 커플 댄스는 행사장의 흥을 한층 돋웠으며, 포토부스에서는 동문과 가족들이 재미난 표정을 지으며 추억을 남겼다. 김정필 회장은 “뉴욕 동문회는 소통과 화합, 세대교체라는 과제를 하나씩 성실히 해결하며 더욱 즐거운 만남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이라



축하 음악회에서 공연한 젊은 음대 동문들.

고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동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며 아쉬운 한 해를 마무리했다. 행사장을 떠나는 동문들은 “내년 송년회가 벌써 기다려진다”며 이번 행사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송년회는 두 달 전부터 매주 줌 미팅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집행부의 노고가 돋보였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로 동문 간의 유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글 = 이영주(농생대 83)



올해 송년회에는 동문 가족 16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 조지아 지부

##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에 맞춰 댄스 타임

조지아 동문회(회장 최화진)가 지난 12월14일 존스크릭 메드락브리지 파크웨이길에 있는 이관이벤트센터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열었다.

100여명의 동문 가족이 이날 모임에 참석해 식사와 여흥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마지막에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랭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노래에 맞춰 댄스 타임을 가졌다. 한자리에 모인 조지아 동문들.



## 밴쿠버 지부

## 올해 장학생 5명에 장학금 전달 뜻깊은 시간

밴쿠버 지부(회장 성영주)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송년회 및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모임에서는 2024년도 밴쿠버 장학회 장학생 3명과 미주동창회가 후원한 기금으로 장학생 2명을 더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신임 회장으로 송태영(해양학과 84) 동문을 선출했다.

동문들은 새해 더욱 풍성하고 활기찬 모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줬다. 한 자리에 모인 동문들.



## 미네소타 지부

## 3M 부사장 이종호 동문이 커리어 개발 강연



용정식 회장(오른쪽)이 문성인 신임 회장에게 동문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한자리에 모인 미네소타 동문들.



지난 12월 14일 미네소타 대학의 Coffman Union President Room에서 약 3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여서 연말총회를 개최하였다.

푸짐한 저녁식사와 자기소개에 이어 3M부사장인 이종호(국사학과 82) 동문이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에 관한 자신의 경험담과 조언들로 강연을 했고

2025년 7월 1일부터 미주 총동창회를 이끌어갈 황효숙(사대 65) 동문이 동창회의 비전과 활동계획을 소개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경흥준, 권예진, 이신애, 이슬아 동문에게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김권식(공대 61), 조성구(의대59), 황효숙 동문의 장학지원금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을 받았으며 장학사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이 미네소타 지부를 격려하기위해 와인 선물을 보내줘 상품권과 함께 경품 추첨으로 동문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차재호 동문(농공 84)도 3M 선물세트를 경품으로 기부해 한층 푸짐한 경품

추첨이 참가자들을 기쁘게 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까지 동창회를 이끈 용정식 회장과 양한승 총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2025년부터 미네소타 지부를 맡을 문성인(공업화학 88) 동문이 동문회기를 전달받으며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글 = 문성인(공대 88)



# 주식시장 활황 덕분에 장학기금 갈수록 늘어

## 총회 및 연말파티

동문 6명에 감사패 수여  
동창회비 50달러로 인상

시카고서울대동창회가 12월 15일 월링 소재 시카고한인문화원에서 8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노유진(음대 03, Cello) 동문과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연의 현악 이중주로 동문들을 맞이했고 한의일 동문의 선도로 교가를 제창한 데 이어 작고한 동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승 회장은 개회사를 하면서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준 임원진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시카고 지부의 현안이었던 IRS 비영리법인 등록 문제 해결과 골든클럽 등 산하 모임 활동의 활동 상황도 전했다.

2024년 행사 보고에서는 특히 장학금과 관련 한의일 장학위원장이 올해 주식시장 활황 덕분에 2개 ETF로 분산 예치된 장학기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총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은 모두 8명이다. 학사일정으로 부모가 대신 참석한 풀 배 학생을 제외한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각자 수상 소감을 밝히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 중 서울대 출신으로는 시카고대에서 회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건우 동문(경영 14)이 포함됐다.

다시 단상에 오른 조규승 회장은 회비 인상 건 관련해 총회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최근 계속된 물가인상과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가 겹쳐 동문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차기 회장들과 임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다소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표결에 붙여진 이사회비 및 동창회비 인상건에 대해 총회는 절대 다수가 찬성,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이사회비는 1인당 \$250, 동창회비는 \$50로 인상된다.

차기 및 차차기 회장으로는 정성일 현 수석부회장과 이동균 동문이 발표됐다. 25년 임원진에는 이동균 수석부회장을 비롯, 이준수/김훈태 부회장, 이태호 재무, 한재훈/김수현 감사, 봉윤식 총무가 선임됐으며 총회는 박수로 인준했다.

이날 황치룡 전 회장, 한경진 골든클럽 회장 등 동문 6명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도 열렸다.

마지막으로 골든클럽과 관악클럽, 세종문화회 및 한인문화원이 산하 동아리 및 관련 기관으로 소개됐다.

한경진 골든클럽 회장과 김수현 관악클럽 회장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악클럽은 90년대 학번 동문들만 가족을 합쳐 서른명이 넘다고 보고했다. 세종문화회 박종희 사무총장은 “여러분들의 후원 덕에 시조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일본의 하이쿠처럼 세계 시조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와 한



시카고 동문들이 2024년 총회와 연말 파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시카고 지부 임원들이 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이를 축하하는 기념 촬영을 했다.

인문문화원에는 동창회 차원에서 보조금 공됐으며 2부 여행 행사는 김훈태-황찬 주 동문의 사회로 진행돼 동문들은 래플과 춤,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봉윤식(사회대 96)  
사진=홍청일(약대 57)  
김수현(생활과학 98)

## 다함께 노래 부르며 즐거운 게임



연말을 맞아 홀리데이 런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한 시카고 골든클럽 회원들.

### 골든클럽 홀리데이 런치

시카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산하 골든클럽은 지난 12월 5일 오후 나일스(Niles) 소재 BBQ Garden에서 약 1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데이 런치(Holiday Luncheon)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흥겨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그레이스 고(Grace Ko)와 첼리스트 세실리아 함(Cecilia Ham) 듀오가 선보인 우아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는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참석자들은 연주 감상에 이어 함께 익

숙한 노래를 부르며 화합을 다졌고 준비된 퀴즈 게임을 통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골든클럽 동문은 “고령 회원분들을 비롯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과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글=한경진 골든클럽회장(상대 59)  
사진=홍청일(약대 57)





바이올린 연주로 소음악회를 마친 윤정나 동문.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연말 송년 모임에 함께 모였다.

**필라델피아 지부**

# 유용한 재정 특강에 아름다운 소음악회

필라델피아 지부는 12월 7일 낮 필라델피아 감리교회에서 5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말파티를 했다. 오랜만에 만나 답소를 나누며 점심을 한 뒤 2부 순서에서는 천흥규(경제학과 84) 동문이 'Trust를 통한 Medicaid 혜택 및 상속 재산보호 계획'이란 주제로 특

강을 했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특강으로 여러 동문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많은 동문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윤정나(음대 57), 소프라노 이인영(음대 87), 테너 양인

준(음대 94) 동문의 아름다운 소음악회가 열렸다. "내 마음의 강물"을 비롯해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Home, Sweet Home' 등 귀에 익은 선율로 모든 청중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박혜경 (가정대 81) 조강제 (인류학과 대학원 13) 두 신입회원을 환영하는 시간과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한 동문 부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러 사정으로 늘 참석하던 몇 분의 동문들이 아쉽게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오랜만에 참석한 다른 동문들과 신입회원들이 메워준 하루였다.  
글 = 심희진(음대 90)



워싱턴DC 동문과 가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연말 파티를 했다.

**워싱턴 DC 지부**

# 동문합창단의 흥겨운 캐롤송에 분위기 Up

워싱턴 D.C.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지난 12월14일 버지니아에 위치한 Springfield Golf & Country Club에서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약 100여 명의 동문 선후배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연말 파티에서는 2024년 활동 보고와 함께 제38대 임원진의 감사 인사, 제39대 임원진 소개,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특히 최고령 참가자이신 김부근 동문(의대 53)은 건강 유지 비결로 60세 이후에는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잘 먹을 것과 꾸준한 운동을 강조했다. 이날 동문 합창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동문 합창단은 매주 모여 합창 연습과 친목을 다져왔으며, 이번 행사에서 캐럴 송과 찬양 그리고 70~80년대 히트 팝송 메들리를 율동과 함께 선보여 연

말 파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동문들은 덕담을 나누며 새해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날 새로 선임된 제39대 동창회 임원진이다. 회장: 남욱현(경영 84)/ 상임부회장: 강형석(기계 86)/ 부회장: 류엽(법대 89)/ 총무팀: 류영준(전기 02), 김진실(식공 12)/ 뉴스레터팀: 박기현(외교 08), 백승하(물리 11)/ 학술팀: 이영종(화학 90), 김희범(건축(원) 15)/ 감사: 이우진(농화학 86)/ 골프팀: 오재환(물리교육 85), 이준(조경 94) 다음은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다. 김미연 동문(GW, 외교 09)/ 김지인 동문(Peabody, 기약 15)/ 김준수 동문(UM, 기계 07)/ 강현준(Johns



캐롤송과 히트 팝송 메들리로 분위기를 띄운 동문합창단.

Hopkins, 강형석·황태윤 동문 자녀)/ 김지수(UVA, 전지현 동문 자녀)/ 오유진(GMU, 오재환 동문 자녀)  
취재=한정희(편집위원·미대 81)





워싱턴주 동문들의 송년회 풍경. (왼쪽부터) 바둑 알까기 게임에 진심인 동문들. 임헌민 회장(맨 왼쪽)과 칵테일 건배를 하는 동문들. 동문들 사이에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정은구 동문이 열창하는 모습.

## “역시 서울대!” 장학퀴즈 문제 모두 맞춘 동문들

올해 워싱턴주 동창회 송년회는 12월 8일 임헌민 회장(공대 기계 84) 덕에서 열렸다. 그동안은 항상 요트 클럽이나 호텔에서 해왔는데 올해는 예약이 힘들어 지난 17년간 동창회 총무로 그리고 지난 2년간은 회장으로 봉사해온 임헌민 동문이 회장을 마치면서 자택을 송년회 장소로 제공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송년회 당일 아침 임헌민 회장과 부인 서인숙 여사 그리고 의사인 큰 딸과 치과 의사인 아들 모두 아침부터 립 아이 스테이크를 굽고 테이블을 세팅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준비 위원들도 1시간 먼저 도착해 음식 세팅, 프로젝트, 마이크 셋업 등 행사를 위한 수고를 했다. 12시가 되면서 도착하기 시작한 동문들은 임회장이 도네이션한 와인을 마시며 반가운 인사와 담소를 나눴다.

행사 첫 순서인 총회에서는 19년을 워싱턴 지부 서울대 동문회를 위해 봉사해온 임헌민 회장의 소회와 이임사가 있었고, 동문들 모두 임헌민 회장의 헌신적인 공헌과 노력, 봉사에 대해 크게 감사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임헌민 회장과 함께 19년을 같이 봉사해 온 부인 서인숙 여사도 지난 19년의 소회

### 송년회에 자택 제공한 임헌민 회장 온가족이 봉사 마무리는 최근 가장 핫한 APT 노래에 맞춘 댄스 타임

를 밝히며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을 약속해 동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신임 회장에는 지난 2년간 동문회 총무로 봉사해온 이정관(농대 농기계 83) 동문이, 신임 총무에는 박한규(공대 컴퓨터 91) 동문이 선임됐고 송은주(간호 85) 재정 총무도 향후 2년간 서울대 동문회 워싱턴 지부의 임원진으로 봉사하기로 했다. 김인배(수의대 59) 동문은 뉴욕에 사는 딸 방문으로 송년회를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뉴욕에서 전화로 회계 감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명자(간호 74) 장학위원장의 장학사업에 대한 간략한 현황 발표가 있었는데 2024년에 워싱턴 지부 동문들이 총 2만4300달러의 장학금을 후원해줘 줬고 UW 한국학과 학생 2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당 \$1,000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명자 장학위원장은 워싱턴 지부 서울대 동창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무료 진료소 코너 스톤의 대표로 활동하며 올해 ARPA Grant 를 받아 청소년 30명

을 선발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선행으로 시애틀 뉴스에도 동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새로운 동문 소개 시간에는 김유정(음대 피아노 77), 유주현(미대 95· 공대 건축 01), 박경호 영사(경영 95) 그리고 이번 송년회 모임의 최고 막내 오미정(경영 05) 동문이 소개됐다. 총회후 단체 사진 촬영과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한 후 게임과 여흥 시간을 가졌다. 팀을 4팀으로 나눠 팀 이름을 3글자 동물 이름으로 짓고 발바닥 게임과 비슷한 진행 방식으로 무릎, 손뼉, 왼손, 오른손 순서 4박자로 자기팀 이름 먼저 부른 뒤 바로 옆 팀 이름을 외치는 방식으로, 팀웍 다지기로 게임을 시작하였다. 추억의 장학퀴즈 게임은 실제 장학퀴즈에 나왔던 문제들을 준비했고 진행 방식도 예전과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은 준비한 모든 문제의 답을 맞췄으며 모두들 엄청난 집중력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역시 서울대 동문회에서 게임은 머리를 쓰는 게임이 들어가야 정말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우승한 팀의 팀원 모두 우승 상품을 받았다.

동문회에서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정은구 동문(치대 92)이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고 앵콜까지 받았다. 이어진 게임은 바둑 알까기. 바둑판에 흰돌과 검은돌을 양 편에 배치하고 자기편 바둑돌을 손가락으로 튕겨 상대방 바둑돌을 쳐내 상대방 바둑돌이 모두 바둑판 밖으로 나가면 이기는 게임으로 모두가 아는 게임이지만 실제 팀 게임으로 팀원 한사람씩 돌아가며 하다보니 팀원들의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하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행사의 마지막은 “모두가 춤을” 시간에는 요즘 제일 핫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 노래에 맞춰 모두가 신명나게 춤추는 것이었는데 임헌민 회장의 큰딸이 리드를 하며 가르쳐줬고 동문들은 어려운 춤동작을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습득하여, 경쾌하고 발랄한 음악에 맞춰 신명나고 멋있는 춤을 추면서 모두가 즐거웠던 2024년 송년회의 막을 내렸다. 글 = 이정관(농대 83)



송년회를 위해 임헌민 회장 집에 모인 동문들이 한데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커네티컷 지부

유은주 여사 장학금 후원

커네티컷 지부(회장 박성훈)는 지난 11월 23일 뉴브리튼에 있는 서울 바베큐에서 가을 정기 모임을 가졌다. 김창수 동문(의대65) 부부부터 예일대에서 박사학위 중인 김지영 동문(언어학과 13)까지 16명이 모여 밝은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성훈 회장(수학91)은 예일대에서 수학중인 여러 후배들을 고려해서 다음 모임은 예일대 근처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유시영 동문의 부인 유은주 명예 회원이 동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2000달러와 운영기금 500달러를 후원했다. 차기에는 박상은 동문(공대82)이 부회장을, 임현숙 동문(무기재료 83)이 총무를 맡게 됐다.



연말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커네티컷 동문들.



(왼쪽부터) 손을 들며 게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동문들. 지난 한해 샌디에고 동문회장으로 봉사한 송오석 동문. 체크인을 하며 칵테일 한잔씩을 집어든 동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 트리 앞에서 ‘찰칵’ 가족 사진 기념으로 선물

샌디에고 지부

골프 클럽에 모인 동문 가족 76명  
4시간 넘게 퀴즈, 게임, 래플 즐겨

12월 8일 저무는 2024년을 아쉬워하면서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문회 송년 모임을 성황리에 가졌다. 동문과 가족 76명이 오후 4시부터 8시 반까지 4시간 반 동안 Rancho Bernardo에 위치한 The Height Golf Club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클럽 하우스 입구에 도착한 동문 가족들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고 즉석에서 인화한 사진에 '2024 San Diego 서울대 동문회 송년의 밤'이라는 캡션을 넣어 기념 선물로 드렸다.

체크인을 한 동문들은 Welcome drink

로 칵테일을 한 잔씩 받아들이고 골프장이 보이는 테라스에 모여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나눴다. 식사 시간에는 비슷한 학번의 동문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더욱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졌다.

스테이크와 연어를 주요리로 한 식사를 마치고 열린 본 행사에서는 박상호 동문이 주도해 올해 세상을 떠난 선배님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재정보고에 이어 올해 있었던 동문회 행사를 돌아보는 순서도 마련됐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샌디에고 동문회의 영원한 MC 임용갑 동문이 재미있는 퀴즈와 게임으

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로봇 청소기, 아이패드 등의 푸짐한 상품이 걸렸던 래플에 대한 동문들의 참여 열기도 아주 뜨거웠다.

올해 장학금은 UCSD 포닥으로 있는 약대 05학번 김단비 동문에게 수여됐다.

동문들은 우리 가곡 '선구자'를 합창하며 내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으로 송년의 밤을 마무리했다. 송오석(공대 91) 회장이 올해로 임기를 마치고 2025년에는 박상호(치대 80) 동문이 신입회장으로 샌디에고 동문회를 이끈다.

글=송오석(공대 91), 사진=심상철



트리 앞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동문들.



샌디에고 동문과 가족들이 송년 모임을 아쉬워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 천억개의 은하, 그 안에 천억개의 별, 그리고 지구와 인류

뉴욕 북클럽 독서 모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뉴욕 북클럽 제 5차 모임이 지난 11월 22일 뉴욕 베이사이드 거성에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주제로 열렸다. 때마침 한강 작가에게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읽은 후 작품에 대한 토론과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첫 발제자로, 신응남 (15 대 미주동창회장) 동문이 <코스모스>의 전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발표했다.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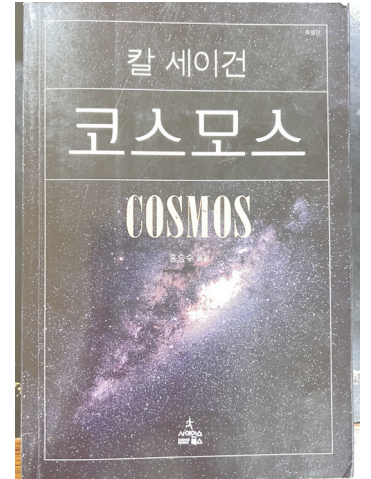
코스모스는 광대하고 냉랭하고 어디로 가나 텅 비어 있으며 끝없는 그곳은 행성과 별과 은하들이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게 보인다.

우주에는 은하가 대략 1000억개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저마다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에서 생명이 사는 행성을 아주 평범한 별인 우리의 태양만이 거느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코스모스의 어느 한구석에 숨은 듯이 박혀 있는 우리에게만 어찌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생명이 서식한다고 알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

지구는 대략 46억 년 전에 성간 기체와 티끌이 응축된 구름 속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최초의 생명이 대략 40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바다나 연못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다. 40억 년 전 지구라는 '에텐동산'에는 분자들만이 있었다. 지상의 생물들은 모두 유기 화합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복잡한 미세 구조의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최초의 유기 생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생물로 진화할 수 있었던 말인가? 사



뉴욕 북클럽 동문들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토론을 했다. 책 '코스모스'의 표지 사진.



## 광활한 우주, 생명체가 사는 곳이 지구 뿐일까 경이로운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 담아

람은 100조 개가량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은 수많은 생활공동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군집인 셈이다. 살아 있는 세포는 은하와 별의 세계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이룬다. 세포라는 이름의 이 지극히 정교한 기구는 40억 년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어렵게 걸어진 진화의 결정이다.

두번째 발표는 임현숙 (공대 83) 동문의 제 10장 '별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소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별들도 태어나고 살다 죽는다 그리고 별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유기물 원자들(탄소 산소 질소..)은 별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의 탄생에서 별의 흔적을 볼수 있다.

지구의 모든 생명활동은 태양에너지에 의존한다. 태양에너지로 식물이 성장하고 인간은 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우리와 우주를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우주와 화학적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코스모스의 일부로 산다.

세번째는 천흥규(상대 84) 동문이 제 11장 '영원한 벼랑끝'이라는 소 제목으로 발표했다. 어느 문화권이든

지 창조 이전의 세상과 창조에 관한 신화를 갖고 있다. 세상이 "신들의 짝짓기에서 만들어졌다"라거나 "우주의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식의 소박한 우주관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우주들의 계층 구조가 아래로만 연결되라는 법도 없다. 위로도 끊임없이 연결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은하, 별, 행성, 사람으로 구성된 이 우주도 바로 한 단계 위의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소립자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무한히 순환된다.

네번째로, 김현진(미대 93) 동문이 제 12 장 '은하 대백과사전'의 소주제로 발표했다.

지구에 외계문명의 흔적이 있을까? 칼 세이건은 은하수 우주에는 지구보다 나이가 수백만년 더된 행성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태양계에서는 지구 외의 고도 기술 문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유로 그들이 우리보다 1만년 정도 뒤져있다면 결코 고도의 기술 문명 사회가 아닐 것이라고 하며, 반대로 우리보다 앞선 문명이라면 이미 태양계 곳곳을 탐색해서 이미 지구에 와있어야 마땅하다고 한다.

마지막 발표는, 변혜순(간호 68) 동문

이 13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를 요약했다.

코스모스의 발견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작고 연약한 쥐면 부서질것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우주 시각으로 볼때 눈에 띄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지구에서 살아온 인류는 못된 진화적 습성을 많이 길러왔다.

지구는 극단적인 민족 우월주의, 종교적 분쟁 등 화해할 줄 모르는 증오심으로 지구 파괴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인류의 생존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분쟁과 파괴보다는 협력과 보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수행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있다. 핵 전쟁이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 전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음을 경고 한다. 우주탐사는 인류의 관점을 넓혀주고 지구와 생명체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우주탐사를 통해 인류가 지구를 넘어 새로운 터전을 찾을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인간은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이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님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정리= 신응남 북클럽 대표(15대 미주동창회장)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새해 모든 날들이 아름답고 행복하시길

## 한국 젊은 세대가 보여준 새로운 시위 문화 세계로 뻗어가는 K컬처, 또 하나의 희망 봐



장소현  
(미대 65, 시인)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힘차게 희망을 말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곤 하지요.

하지만, 올해는 선뜻 희망을 말하기 어렵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소용돌이 현실에서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의 현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는 미국도 그렇지요. 세계 여기저기의 전쟁도 간단하게 그칠 것 같지 않고... 아득한 벼랑 끝에서 있는 아슬아슬한 느낌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절박함...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는 큰 경사가 어지러운 현실에 가려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희망

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겪으면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하나같이 감탄하며 부러워한,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건강한 믿음을 확인한 것은 너무도 큰 소득이지요. 희망을 믿어도 되겠다는 자신감...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보여준 새로운 차원의 시위문화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살벌한 구호와 주먹질만 난무하는 험상궂던 시위를 흥겹고 신바람 나는 축제로 변화시키고, 그러면서도 할 말은 아무지게 다 하고,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정연하게 질서를 지키고,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자세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외국 언론들이 놀라며 부러워할 만도 하지요. ‘광장의 품격’이라는 멋진 말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로 뻗어가는 K-컬처의 정신적 바탕인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젊은 기운을 믿으며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 있는 목소리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잠깐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면, 우리는 한층 더 빠르고 강해질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고, 땅도 굳는 법이지요.

“시민들이 보여준 진실과 용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굉장한 많은 시민들이 집에서 달려나가서, 모여서,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있기도 하고, 맨주먹으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군인들을 꺼안아 달려가기도 하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 낭독의 밤’ 행사에서 한 말

“한국인들의 바람에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르한 파묵의 말

정치에 대한 생각이나 이념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같을 수가 없

지요.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적대시하며 싸우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마음을 여는 자세일 것입니다. 대동소이(大同小異),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면 되는 일이지요.

2025년 을사년은 뱀의 해, 색깔로 치면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올해의 띠동물인 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지요. 뱀은 보통 두렵고 징그러운 동물로 여겨지지만, 생명과 치유와 지혜의 에너지가 가득 찬 동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뱀 이야기는 인류 신화 곳곳에 원형의 이야기로 담겨 있고, 동서양의 창조신화에서 뱀은 빼놓을 수 없는 신성의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신화학자에 따르면, 대체로 농경의 전통이 강한 곳에서는 뱀을 긍정적인 신성으로 받드는 경향이 크고, 유목문화 속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문화에 따라 대자연의 전령과 생명의 기운으로 파악하고, 다른 편에서는 가축을 물어 죽이는 사악한 존재로 본다는 것이지요.

뱀에 대한 생각은 동양과 서양이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뱀을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 사악한 존재, 교활함의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신화에서는 신앙적 존재로 자리잡고 있지요. 중국 창조신화는 인간의 얼굴에 뱀의 몸통을 지닌 두 창조주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뱀 자체를 시조신으로 여기는 식입니다.

한편, 한국 민간신앙에서는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옛날 민간에서는 구렁이가 집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물을 내려준다 해서 길조로 여겼습니다. 꿈에 뱀이 나타나는 것은 용꿈 못지않게 길몽으로 여겼습니다. 가령 뱀이 몸을 휘감고 있는 꿈은 재물이 들어와 재산이 늘거나 승진하는 꿈이라고...

신화 속의 뱀은 대부분 지혜와 변화와 재생과 탈피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흔적으로부터 허물을 벗어 거듭나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를 밝혀 악을 물리치는 진실의 수호자가 신화 속 뱀의 상징이지요.

허물을 벗고 거듭나는 뱀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삼엄한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여준 당당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삼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희망을 담아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싶네요.

새해의 모든 날들이  
부디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기를,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사랑, 기쁨, 보람, 자랑스러움,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SEOUL NATIONAL UNIVERSITY

## FOUNDATION DONORS

### 23.11.01. ~ 24.10.31.

**CREATE TOW**  
 내일을 이루는 꿈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서울대학교발전재단미주재단  
 전화 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

####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시는 기부자

100만원 이상 **이효상 배수옥** 50만원 이상 **John M Liew** 10만원 이상 **노명호 박민식 박금옥 박종수**  
**양남주 이광선 한홍택 & 백훈 Han Kim** 10만원 이하 **권정덕 김성열 전후자**  
**서중민 신두식 윤영희 이수녕 이정은 이주영 임낙균 정인숙 조두연**  
**홍선경 Benjamin & Vivian Hong Ralph N Wharton** 1만원 이하 **강동원**  
**강창만 김경숙 김영주 김원명 김태환 방효준 송원길 양승귀 양운택**  
**오수황 오유섭 오인환 원정윤 이만택 이재원 이정필 이종성 이진웅**  
**임상진 장병진 & Sharon Chang 최준희 한귀희 한종하 한태진**  
**한혜순 익명 1명 Dr. Hyung Tae Choe & Gertruda D. Chung Choe**  
 1천원 이하 **김영기 김용두 김우영 김정순 김희자 나정자 민희숙 박선희**  
**박숙희 박은주 박혜란 백옥자 성옥경 안상금 유광현 윤국희 이말순**  
**이은희 이재길 이진희 조무상 한승순 홍준표 홍지복 Sun Seog Kim**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우측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는  기부액  원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 트럼프, 일론 머스크, 중국



**최석원**  
(행정대학원 20-22)  
네브라스카 대학교  
AI정책 박사과정

트럼프는 중국의 부상을 가장 먼저 경고한 인물이다. 그는 집권 시절부터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며,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는 더욱 구체적으로, 중국의 혁신 속도와 경쟁력을 경고해 왔다. 그는 중국의 AI와 로봇 산업, 그리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인재들의 역량을 지적하며, 이를 미국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평가했다.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념적 논쟁이나 국제적 갈등에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술 경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지지하

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투자나 기술의 문

는 현실적 전략 없이 이상론에 의존할 때 국가적 약점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AI와 로보틱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트럼프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중국이 이미 비트코인 보유와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달러 패권을 흔드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친환경 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유럽은 이념적 리더십을 앞세워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 되었다. 이

제제 각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이미 놀라운 속도로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요 전장이 되고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AI와 관련된 투자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행보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국은 핵심적인 퍼즐 조각이

다.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기회를 시사한다.

한국은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술과 문화적 역량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발 앞서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자신들이 믿는 가치와 비전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들의 행보를 단순히 이념적 논란이나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큰 실책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시한 퍼즐 조각을 조합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냉철한 전략과 실행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퍼즐 조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더 넓고 선명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의 흐름에 맞춰 과감히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미국에도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고?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얘기다. 행사장에서 우연히 레이건을 만난 한국의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미국에도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레이건으로부터 뭔가 코멘트를 얻어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보탬이 될 요량으로 이같은 질문을 했던 모양이다.

씨익~ 한번 웃어넘기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 레이건. 그러고는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국적 표현으로는 ‘벌로니(baloney)’라고 할까. ‘허튼 생각’이라는 뜻이다.

하기야 미국에서 쿠데타 음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집권 2년차인 1934년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사정은 이렇다. 대공황이 터지자 수많은 기업이 폭삭 망하고 미국인들은 거리로 나왔었다. 소셜시큐리티, 실업보험, 최저임금 등의 복지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이어서 미국인들은 짬짬 못하고 알거지가 됐다. 갈 곳없는 미국인

들은 대도시에 판자촌을 세우고 거기서 살았다. 이 판자촌을 일컬어 경제를 망친 후버 대통령에 빗대 ‘후버빌(Hooverville)’이라고 불렀다.

유권자들은 나라살림을 거덜낸 후버와 공화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의 루즈벨트를 백악관 주인으로 뽑았다. 그가 내세운 뉴딜 정책은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친화적인 공약이 주를 이뤘다.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자본가들은 루즈벨트의 잇단 개혁에 분노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애덤 스미스식 자본주의를 찬양하던 기업인들에게 뉴딜개혁은 빨갱이나 하는 짓이었다. 대기업들은 집요하게 루즈벨트 악마화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쿠데타 음모가 터져 나온 것이다.

월스트리트가 쿠데타 지도자로 내세운 인물은 스메들리 버틀러 예비역 해병 소장. 1차대전 참전용사 50만명을 동원해 연방의사당과 백악관을 점거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루즈벨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버

틀러를 지도자로 내세워 파시스트 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는 곧 발각되고 만다. 폭로자는 뜻밖에도 버틀러 자신이었다. 전쟁영웅이었지만 그는 민주주의 신봉자였던 것.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쿠데타 모의의 전모를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JP 모건을 비롯해 듀폰, US 스틸, 스탠더드 오일 등 재벌기업들이 거사 자금을 대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쿠데타 관련자들은 술자리에서 나온 농담에 불과하다며 발을 뺐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더글러스 맥아더. 합참의장이 없던 시절이어서 그는 사실상 군서열 1위나 다름없었다.

용의자들을 붙잡아 물고기를 내며 배후를 캐낼법 했으나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으니 군통수권자인 루즈벨트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였어야 했지만 그 역시 침묵으로 일관한 것.

그래서 기업인들의 쿠데타 음모는 실재했으나 루즈벨트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나돌았다. 쿠데타 모의에 참가한 기업인들을 몽땅 잡아들이면 가뜰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뉴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게 뻔해 쿠데타 음모를 없던 일로 덮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역사는 이 사건을 쿠데타가 아닌 ‘비즈니스 계략(Business Plot)’이란 말로 얼버무렸다.

‘서울의 봄’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할리우드도 1930년대 미국의 쿠데타 음모를 영화로 만들었다. 데이비드 러셀 감독의 ‘암스테르담’이다. 로버트 드니로와 크리스천 베일, 마고 로비, 심지어 ‘팝의 여제’ 테일러 스위프트도 출연하는 등 초호화 캐스팅이다. 거의 1억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흥행수입은 4천만 달러에도 못미쳤다.

‘암스테르담’은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했는데도 왜 흥행에 실패했을까. 미국인들에게 쿠데타는 ‘벌로니’ 곧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영화를 볼 가치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 총동창회 관악 캠퍼스로 이전, 한 해 장학금 40억 달성

## 2024 본회 사업 결산

포럼·특강 열어 지식 충전하고  
등산·국토기행 취미모임도 활발

“전망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유홍립 모교 총장이 김종섭 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진에게 말했다.

전망을 극찬하면서 띠 미소엔 부러움마저 엿보였다. 정면으로 캠퍼스 순환도로를 접하면서도 고개만 살짝 돌리면 관악의 울창한 산세가 달려들었다. 마침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과연 관악캠퍼스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풍광이었다.

본회에 오면 누구나 모교 총장이 부러워하는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 10월 24일 본회가 관악캠퍼스 75동 2층으로 이전을 완료한 것. 대학신문이 입주해 있던 옛 복지관을 허물고 재건축을 통해 지어진 75동 융합관(최초 명칭 역사연구기록관)은 2014년 6월 모교와 건립 협약을 맺은 지 10년 만에 완공됐다.

연면적 1만890㎡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관악캠퍼스 내 240여 개 건물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건물이다. 본회 재단법인인 관악회에서 51억 3000만원, 한화그룹에서 50억원, 국고 출연금 145억 8000만원, 농생대에서 62억 2000만원을 각각 출연해 총 309억여



원이 소요됐다.

순환도로의 경사길에서 융합관 2층으로 들어오는 구름다리 쪽 건물 입구엔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본회의 대형 전광판이 걸려있다. 전광판 옆엔 실내정원이 꾸며져 있고, 실내 출입문과 라운지엔 대형스크린이 설치돼 있어 장학금 기부자의 사진과 본회 주요 행사 사진, 학교 홍보 영상 등이 상영된다.

송우엽(체육교육79-83) 사무총장은 “융합관 입주는 본회 역사에 커다란 전기”라며 “관악캠퍼스 내 이전을 계기로 학교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동문들이 모교를 찾았을 때 정겨

운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생 선배들이 사회에 진출해 이룬 성취를 모아 재학생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 일은 동창회 역할의 기본이자 핵심. 본회는 재단법인 관악회를 통해 2024년 한 해에만 1459명의 장학생에게 약 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본회는 1970년 우수한 성적의 모교 재학생 1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장학사업을 확대해오고 있다.

본회는 장학금 외에도 재학생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 ‘천원의 식사’에 5000만원을, 봄가

숫자로 보는 2024년도 총동창회

40억원

장학금 지급  
\*10.31. 기준

13억2500만원

기부금 모금  
\*10.31. 기준

9억5000만원

회비납부 실적  
\*11.23. 기준

9000만원

사회공헌 지원  
\*모교 공헌단 지원

2100명

홈커밍데이 참가자

1500명

나눔가족음악회 참가자

8회

조찬포럼·수요특강

4회

국토문화기행·등산

## 제27회 관악대상 후보 추천 공고

총동창회는 매년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명예를 드높인 분 또는 단체에 「관악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27회 관악대상 후보자(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 추천 대상

-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분 또는 단체
- 인류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총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분 또는 단체
- 해외에 거주 중인 분 중,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 또는 단체

### 선정 인원

약간 명

### 후보추천

- 추천방법 : 서울대인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추천 서식에 맞추어 후보의 공적 및 주요 활동 사항을 작성하여 총동창회 사무처로 제출

\* 추천 서식은 홈페이지 [www.snu.or.kr](http://www.snu.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천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수상자는 2025년 2월 중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2025년 3월 28일(금) 정기총회에서 시상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담당자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75동 201호 (신림동)  
전화 : 02-879-8208, 팩스 : 02-703-0755  
이메일 : [member@snu.or.kr](mailto:member@snu.or.kr)  
※ 추천 서식 및 역대 수상자 명단은 홈페이지 [www.snu.or.kr](http://www.snu.or.kr) 공지사항 참고

## 문리대동창회 4·19민주평화상

### 수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상금 5000만원 ... 2월 28일까지

문리과대학동창회(회장 김인규)가 제6회 4·19민주평화상 수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수상 후보는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자유·민주·정의·인권·평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헌신하고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공공기관·학술단체·연구기관·사회단체·고등교육기관의 장이나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의 추천 의뢰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 문리대동창회 임원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 서식은 문리대동창회 홈페이지([www.msnu.or.kr](http://www.msnu.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내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주소 [msnu@msnu.or.kr](mailto:msnu@msnu.or.kr)로 접수하면 된다. 추천서는 관인·직인·서명 등이 있는 PDF 스캔파일이나 한글파일이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내년 4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을 수여한다.

그동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정남 전 청와대 수석,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안성기 배우,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수상했다.



www.snuaa.org

#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동영 (사대 60)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시카고 - 조규승 (문리 72)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북가주 - 박순희 (의대 60)  
북가주 - 남광순 (음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백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용오 (의대 66)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체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근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최인숙 (사대 67)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북가주 - 박순희 (의대 60)  
북가주 - 남광순 (음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종률 (사대 51)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인숙 (간호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형 (의대 58)

**워싱턴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서희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강영국 (수의대 67)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 65)  
진성호 (공대 64)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헌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남가주

- 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재호 (상 81)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성 (대 72) 권복성 (문 64) 김경 (문 63) 김경수 (사 58) 김경자 (미 60) 김건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욱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기형 (상 75) 김남영 (공 53)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명희 (간 60) 김민영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연 (공 68) 김병완 (공 58) 김병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용주 (간 69) 김용재 (문 61) 김원탁 (공 65) 김일성 (의 65) 김자성 (의 79)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종표 (법 58)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택수 (의 57) 김학철 (의 55) 김혜숙 (미 68) 김홍목 (문 60)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나용화 (생 79) 노명호 (공 61) 노진걸 (사 70) 문경호 (문 59) 문병길 (문 61) 마동일 (의 57) 민일기 (약 69) 박명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준 (공 53)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우선 (공 57) 박은숙 (미 62) 박은희 (미 68)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지경 (생 60) 박중수 (수 58) 박찬호 (공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혜란 (미 70) 박혜록 (간 69) 박호현 (의 52) 박흥근 (공 64) 박희자 (음 68) 방명진 (공 73)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흥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지원 (공 69) 선우원근 (공 66) 성낙호 (치 63) 성주경 (상 68)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 송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송대진 (공 79)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오선동 (의 63) 오찬수 (약 57) 오현원 (의 53) 우준식 (상 61) 원종민 (약 57) 위중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영자 (음 63) 유이중 (농 74) 유석환 (치 55) 윤태식 (의 61)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석철 (상 60) 윤희성 (치 65) 윤기환 (치 65) 이건일 (의 62) 이기중 (인 83) 이기준 (법 54) 이명수 (농 58) 이방기 (농 59) 이법식 (공 61) 이상우 (의 56) 이서희 (법 70) 이상숙 (공 56) 이상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수 (상 60) 이영일 (문 53) 이영현 (간 70) 이윤희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의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모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창훈 (상 61) 이채진 (문 55) 이태영 (법 60) 이희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민빈 (상 58) 임성중 (사 7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욱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병희 (인 86) 장소현 (미 65) 장용우 (음 57)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욱 (사 52) 전원일 (의 77) 정균희 (의 64) 정동주 (생 72) 정명자 (사 56) 정예현 (상 63) 정연중 (상 63) 정인환 (법 54)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명진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동철 (사 68) 조재국 (농 67) 주선희 (문 66) 주정래 (상 65) 주중자 (간 61) 조태욱 (사 60) 주정래 (상 65) 주훈 (음 69) 차승철 (법 54) 차중환 (사 54)

- 최규황 (법 69) 천원희 (가 71) 최복철 (공 70) 최영순 (상 61) 최영준 (간 69) 최영지 (미 62) 최인숙 (사 67)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호 (상 53) 한원민 (의 59) 한의일 (공 62) 한정현 (치 55) 한홍택 (상 61) 한송욱 (간 73) 한기용 (문 64) 홍성민 (공 57) 홍선례 (음 70) 홍수윤 (의 59) 황건홍 (공 55) 황현상 (의 55)

- 이문봉 (미 76) 이상근 (상 84) 이상무 (의 56) 이영숙 (간 60) 이영일 (의 60) 이영선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우 (음 65) 이준행 (공 48) 이종욱 (농 69) 이창호 (의 63) 이태안 (의 61) 이희만 (간 70) 이희우 (공 50) 전병식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영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용 (사 61) 조남현 (사 59) 조대환 (공 61)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음 56) 최영태 (문 67) 최승용 (의 61) 최정호 (사 63) 최정희 (의 58) 최정우 (사 63) 최현우 (농 58) 최형우 (법 69) 한병용 (문 71) 한태진 (의 58) 한종근 (간 66) 허경력 (의 71) 허성현 (의 58) 허정열 (사 63) 홍정표 (음 67)

- 이문봉 (미 76) 이상근 (상 84) 이상무 (의 56) 이영숙 (간 60) 이영일 (의 60) 이영선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우 (음 65) 이준행 (공 48) 이종욱 (농 69) 이창호 (의 63) 이태안 (의 61) 이희만 (간 70) 이희우 (공 50) 전병식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영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용 (사 61) 조남현 (사 59) 조대환 (공 61)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음 56) 최영태 (문 67) 최승용 (의 61) 최정호 (사 63) 최정희 (의 58) 최정우 (사 63) 최현우 (농 58) 최형우 (법 69) 한병용 (문 71) 한태진 (의 58) 한종근 (간 66) 허경력 (의 71) 허성현 (의 58) 허정열 (사 63) 홍정표 (음 67)

- 오동환 (의 65) 오형주 (사 88) 이상길 (의 65) 장병진 (공 61) 조병진 (공 64) 주명순 (간 64) 최병두 (의 53) 하계현 (공 64)

-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전희순 (간 76)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경수 (문 54)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이시영 (상 45) 이흥락 (공 48) 이용수 (약 51) (고)이윤모 (공 76) 이준수 (공 76) 이종일 (의 65) 장윤일 (공 60) 전연학 (공 69) 전현일 (농 62) 조대현 (공 67) 조중현 (의 63) 최대한 (의 59)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의일 (공 62) 한재은 (의 59) 홍건 (의 64) 홍성일 (약 57) 황소나 황치룡 (문 65)

-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전희순 (간 76)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경수 (문 54)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이시영 (상 45) 이흥락 (공 48) 이용수 (약 51) (고)이윤모 (공 76) 이준수 (공 76) 이종일 (의 65) 장윤일 (공 60) 전연학 (공 69) 전현일 (농 62) 조대현 (공 67) 조중현 (의 63) 최대한 (의 59)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의일 (공 62) 한재은 (의 59) 홍건 (의 64) 홍성일 (약 57) 황소나 황치룡 (문 65)

- 정의철 (의 55) 하재청 (문 67)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경희 (가 71) 김국간 (치 64) 김규화 (상 63) 김정현 (공 58) 김현영 (수 58) 손재욱 (가 77) 송성규 (공 50) 서의원 (공 66) 서중민 (공 64) 성기호 (상 59)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심영석 (공 76) 안세현 (의 62) 엄종렬 (미 61) 오진석 (치 56) 윤영걸 (의 70)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상숙 (생 74) 이수경 (자 81) 이지춘 (미 57) 이희배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위상원주 권영희 (약 66)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김재훈 (공 72) 류성열 (공 72) 박진수 (의 57)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상숙 (생 74)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희배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 유타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기춘 (공 61) 김영서 (상 54) 김중구 (수 73) 김현희 (간 59) 남세현 (공 67)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고성모 (사 67) 소용덕 (의 57) Steve Sung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은철수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웅 (공 60) 정선휘 (공 65) 최덕순 (간 58) 최충진 (의 63)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정신희 (사 78) 케네디컷 라찬국 (의 57) 최창승 (의 58) 테네시 권준희 (가 87) 김영덕 (공 70) 백순 (법 58) 백유현 (공 64) 서윤석 (의 62) 신경은 (문 65) 오인환 (문 63) 양용관 (수 62) 우재형 (상 54) 유달 (의 67) 유영진 (인 74) 유영준 (의 74) 이건희 (수 54) 이규원 (문 62)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상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윤주 (상 63) 이재승 (의 55) 이준경 (의 52) 이민우 (의 67) 이민택 (의 52)

뉴욕

Ai Ja Lee 고애자 (음 57) 계동휘 (치 67) 관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영대 (공 69) 권정환 (공 56)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광현 (미 57) 김문경 (약 61) 김복영 (간 69)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옥현 (의 59) 김영무 (공 75) 김영용 (치 55) 김영철 (문 50) 김영철 (의 55) 김영취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의 66) 김정희 (간 69) 김중원 (가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희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남상태 (간 65) 문석면 (의 57) 민민기 (의 62) 리준우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원 (미 66) 박경희 (음 57) 박상수 (공 56) 박은규 (약 72) 박준재 (의 70) 변경웅 (공 65) 변호현 (간 63) 배상규 (공 60) 서병선 (음 65) 서중선 (사 57) 석창호 (의 66) 선종철 (의 59) 성기호 (약 57) 손규인 (의 67) 손경택 (농 57) 손진태 (약 60)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송은숙 (간 66) 신두식 (의 58) 신응남 (농 70) 인태홍 (상 65) 양명자 (사 63) 양성택 (상 66) 오용환 (의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이상영 (상 55)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윤희근 (문 73) 옥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섭 (의 57) 윤중수 (약 66) 윤철 (문 54)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대영 (문 64) 이명준 (공 72)

뉴저지

김영애 (사 56)

네바다

(고)정상진 (상 59) 김상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용태 (의 60) 이학은 (약 57)

달라스

최취기 (공 61)

텍사스

이희삼 (문 68)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문성민 (공 88) 민홍아 (공 88) 송정진 (문 53) 송정진 (문 86) 이재재 (문 56) 주한수 (사 62) 유호근 (문 73)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희 (공 56) 김우신 (의 60) 김정화 (음 56) 김재식 (의 61) 남성희 (의 56) 민영기 (공 65) 박용화 (의 58)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b>남가주</b>	
김동석 (음 64)	100
김병연 (공 68)	500
김성환 (의 65)	300
노진걸 (사 70)	2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0,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흥 (문 53)	1,000
손기웅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채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11,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b>뉴욕</b>	
곽선섭 (공 61)	4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복영 (간 69)	5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4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b>뉴잉글랜드</b>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준 (의)	200
박중승 (의 56)	200
<b>네바다</b>	
김상순 (상 67)	200
<b>미시간</b>	
이성길 (의 65)	200
<b>북가주</b>	
이성원 (공 65)	200

<b>커네티컷</b>	
최창승 (의 58)	200
<b>샌디에고</b>	
임춘수 (의 57)	500
<b>워싱턴DC</b>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20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1,000
백순 (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b>시카고</b>	
강영국 (수 67)	200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b>오하이오</b>	
명인재 (자 75)	200
<b>미네소타</b>	
김권식 (공 61)	1,500
황효숙 (사 65)	2,000
<b>조지아</b>	
이종석 (의 54)	200
성성모 (사 67)	200
최종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b>테네시</b>	
김경덕 (공 75)	200
<b>텍사스</b>	
황명규 (공 61)	200
<b>필라델피아</b>	
최창승 (의 52)	500
서종민 (공 64)	200
손재욱 (가 77)	500
이순희 (사)	300
<b>플로리다</b>	
김중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100,000
<b>휴스턴</b>	
진기주 (상 60)	2,000
<b>하와이</b>	
(고) 전영표 (문 55)	1,000

<b>업소록 후원금</b>	
<b>남가주</b>	
강호석 (상 81)	480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이종묘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48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서동영 (사 60)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종묘 (간 69)	240
이태영 (법 60)	480
<b>뉴욕</b>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240
박중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b>오레곤</b>	
박희진 (농 78)	24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40
<b>장학기금</b>	
<b>남가주</b>	
노명호 (공 61)	10,000
박원준 (공 53)	300
<b>뉴욕</b>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홍성선 (약 72)	100
<b>미시간</b>	
고광국 (공 54)/	100,000
고국화 (공 56)	
<b>시카고</b>	
김현주 (문 61)	
이용락 (공 48)	3,0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200
강길중 (약 69)	500
<b>테네시</b>	
권준희 (가 87)	15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10,000
<b>Website 광고</b>	
<b>남가주</b>	
김자성 (의 79)	1,000
<b>광고후원금</b>	
<b>남가주</b>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16,000
박수경 (생 84)	4,2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전구 (농 60)	1,500
하기환 (공 66)	2,000
홍훈정 (음 70)	300
<b>뉴욕</b>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1,500
<b>인명록비</b>	
<b>뉴욕</b>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b>모교발전기금</b>	
<b>남가주</b>	
박우선 (공 57)	300
<b>미네소타</b>	
황효숙 (사 65)	500
<b>뉴욕</b>	
신응남 (농 70)	2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b>오레곤</b>	
김영자 (간 56)	1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Brain Network</b>	
<b>뉴욕</b>	
신응남 (농 70)	200
<b>미네소타</b>	
황효숙 (사 65)	500
<b>시카고</b>	
한재은 (의 59)	300
<b>워싱턴 DC</b>	
오인환 (문 63)	2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나눔기금(Charity Fund)</b>	
<b>남가주</b>	
주선희 (문 66)	50
<b>뉴욕</b>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b>펜실베이니아</b>	
신의석 (공 53)	5,0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제 33차 평의원 회비</b>	
<b>남가주</b>	
강미자 (음 62)	
김기형 (상 75)	
김병완 (공 58)	
김홍목 (문 60)	
이종묘 (간 69)	
이채진 (문 55)	
민일기 (약 69)	

박중수 (수 58)	
이창렬 (상 67)	
전경배 (의 69)	
조두연 (수 62)	
조정희 (공 60)	
임춘택 (상 68)	
<b>뉴욕</b>	
신정윤 (공 60)	
신응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b>뉴잉글랜드</b>	
윤상래 (수 62)	
<b>룩키타운틴스</b>	
권순영 (간 69)	
<b>커네티컷</b>	
김창수 (의 54)	
<b>조지아</b>	
김명숙 (약 69)	
<b>미시간</b>	
고광국 (공 54)	
고국화 (공 56)	
조병권 (공 64)	
<b>워싱턴 DC</b>	
박평일 (농 70)	
오인환 (문 63)	
<b>미네소타</b>	
황효숙 (사 65)	
<b>필라델피아</b>	
김현영 (수 58)	
윤정나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김경숙 (가 7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u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 ~ 2025/6월, 1년)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b>AAMKO Consulting Co.</b>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b>JUN CHANG CPA &amp; Accounting Corp.</b>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b>STANLEY Cha, CPA</b>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b>Kenneth G. Yum, CPA</b>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b>기계 / 기술 / 전자</b>	
<b>Link TV Media</b>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Turbo Air, Inc.</b>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b>Tayco Engineering, Inc.</b>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북창동 순두부</b>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b>의료 / 병원</b>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b>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b>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Beverly Cardiology Group</b>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b>Choi Gilbert Pharmacy</b>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의료 / 치과</b>	
<b>황준오 DDS</b>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기타</b>	
<b>작가의 집</b>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b>ACCU Construction, Inc.</b>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b>뉴욕   NY·NJ</b>	
<b>공인회계사</b>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b>변호사</b>	
<b>Law Offices E. PETER SHIN</b>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b>금융</b>	
<b>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b>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b>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b>박중호 소아과</b>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김치갑 통증병원</b>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박범렬 소아과</b>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윤세웅 비뇨기과</b>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b>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워싱턴 DC   MD·VA·MN</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etech, Inc.</b>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b>EVS, Inc.</b>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b>Fairway Asset Corporation</b>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b>Wealthy &amp; Wise Family Office</b>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b>Archipelago Construction LLC</b>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b>Abbott Animal Hospital</b>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김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b>THA Consulting, Inc</b>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b>Flonomix Inc.</b>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텍사스**

<b>UNIFAITH Co</b>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기승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아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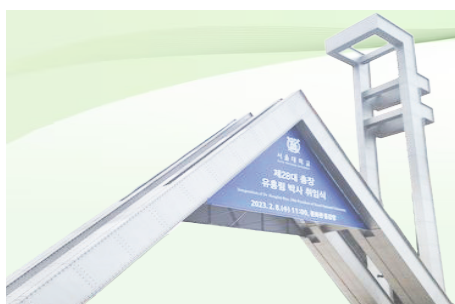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COMPUTATIONAL SOLUTIONS FOR ENGINEERING EXCELLENCE

503-648-0775

www.flonomix.com

Computational Modeling Analysis | Code Studies and Seminars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제17대 미주동창회

###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 차기회장 황호숙(사)

### 명예회장 노명호(공)

###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지),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나용화(생) /부국장 최경석(사),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흥택(공), 공동위원장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 나눔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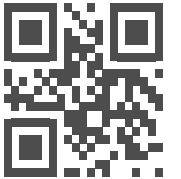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박평일(농)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 80) T: (516)776-0449  
nomacast@gmail.com

###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998-4150  
jklee234@yahoo.com

###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ok@gmail.com

###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 84)  
T: (778) 866-8312  
chris.van.bc@gmail.com

###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회장 이동균(공대 75) T: (847)644-4807  
dlee1917@yahoo.com

###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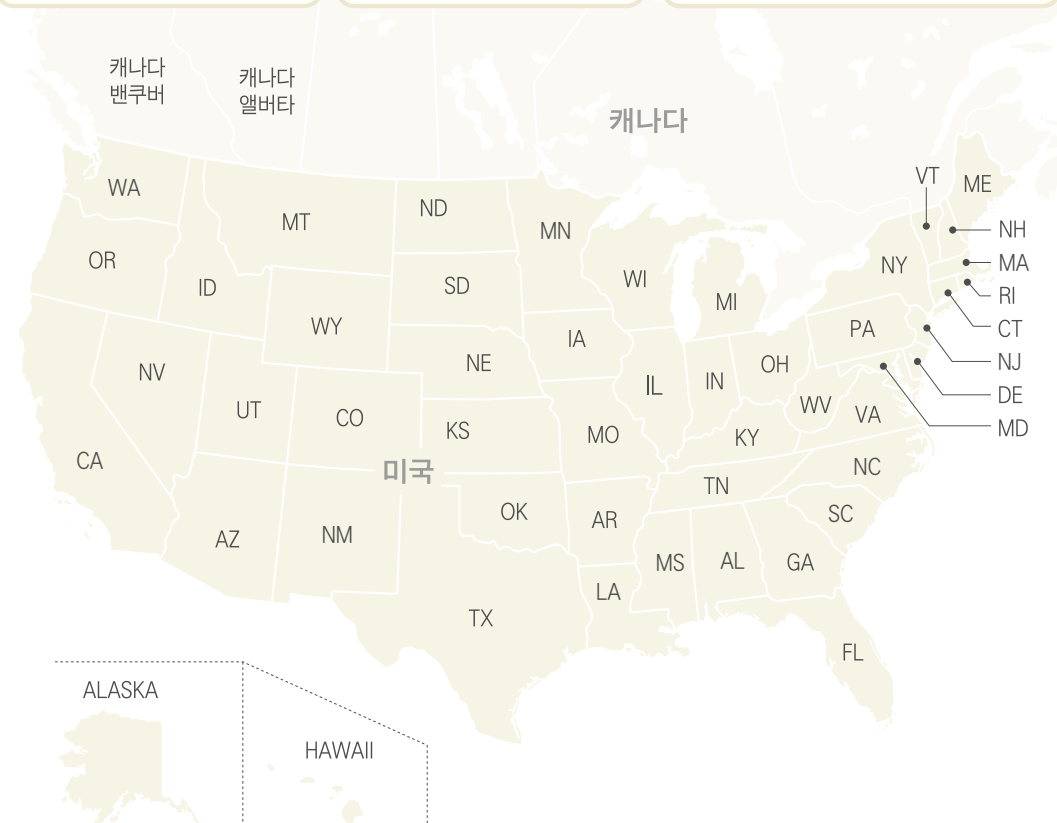
남옥현(경영대 84)  
T: (703)898-6429  
minamusa@yahoo.com

###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220-3021  
June.cho@gmail.com

###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http://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이승훈 (상대 74)

**Jayone Foods, Inc.**  
자연나라

TEL 562-633-7400 | ADDRESS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이경림(상대 64)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Free Consultation Tel: 1.212.768.9144 | [info@klcpagroup.com](mailto:info@klcpagroup.com)  
[klcpagroup.com/klcpa](http://klcpagroup.com/klcpa) 222 |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이병준(상대 55)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